

나 프타 가격논쟁이 再燃되고 있다.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국내 나프타로는 석유화학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어려워니 나프타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논쟁의 발단이다.

국내가격은 CIF 기준으로 7%, FOB 기준으로는 11% 이상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말물가 인상률을 1.2%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하는 기획원의 입장이 가세하여 상황은 자못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本稿가 인쇄에 넘겨질 즈음에는 나프타가격 인하가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

지난번의 나프타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지 꼭 7개월 만의 일이다. 작년 이후만 보더라도 83년 4월의 전면적인 油價인하시 나프타 가격을 5.2% 내린 후 나프타 가격은 같은 해 8월, 금년 3월로 대략 반년에 한번 꼴로 변동이 있어 왔다. 가격이 낮으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높아지면 사용을 기피하는 惡循環의 周期가 6개월인 셈이다.

나프타 문제의 해결을 摸索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 발생의 根因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내 나프타 가격이 어떠한 수준이어야 적정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 × ×

지난 해 우리 나라에 도입된 原油의 평균 단가는 배럴당 C & F기준으로 29.89달러이다. 세계의 어떠한 원유수입국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은 외국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석유제품을 사 쓴다. 원료는 적정가격으로 수입하는데 그 원료를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제품 가격은 국제시세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이다. 세금 때문이다.

석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석유사업기금을 포함하여 1년에 9천2백억원에 달한다. 배럴당 5천3백원에 가까운 돈이다. 실로 엄청난 액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原油를 들여다 精製, 輸送, 販賣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배럴당 1천 8백 45원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프타政策有感

俞石在

이러고도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노릇이다.

石油稅制에 대한 불만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의 租稅政策과 經濟運用方式을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할 때, 나프타 가격만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라란 점은 自明해 진다.

B-C油도 비싸고 燈·輕油도 비싸며, 휘발유나 LPG는 엄청난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나프타 가격은 국제수준에 가까운 편이다. 만 제품은 몇 배씩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근소한 차이밖에 없다는 것은, 상대가격 구조로 보아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韓國的 상황에서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금년 10월중에 우리 나라 회사들이 수입한 나프타 가격은 C & F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27.85달러이다. 이 가격을 도착가격기준으로 바꾸면 29.03달러로 현 국내가격인 30.04달러와 3.4%밖에 차이가 안난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비교할 때 국제가격은 도착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유를 도입할 때도 관세 1%와 방위세 2.5%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나 수입한 나프타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같은 금액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나프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連產品인 석유의 전반적인 틀을 歪曲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프타와 B-C油간의 상대가격 구조가 이지러지고 그 余波로 일반 국민의 家計와 타 산업 부문에 구김살이 가기 때문이다.

석유는 連產品이므로 原油單位當 생산되는 각종 석유제품의 총 판매수익이 原油費와 精製費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프타 가격의 인하는 高度로 조직화된 석유화학 산업을 支援하기 위하여 목소리가 숨어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에 彌滿한 輸出萬能主義의 片鱗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 × ×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가격을 調整하여야 한다면, 석유화학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석유정책이 추구하는 優先目標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이 겨울밤을 따스히 보내기 위하여 국제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도 좋다고 한다면, 타 산업이 연료비 앙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도 이를 堪耐하여야 할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물가정책적 고려가 석유가격 책정에 있어 석유정책에 우선해야 한다면 문제해결 방식은 간단하다.

나프타의 가격과 수출입을 자유화하면 나프타를 둘러싼 모든 현안 문제는 깨끗이 해소된다.

자유화를 택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은 日本에서 시행되고 있는 精油會社와 석유화학 회사간의 협의를 통한 가격과 수입물량 결정 방식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官과 財界간의 협조가 세계에 유례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日本에서도 가격협의 과정에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나프타의 비중치를 0.7로 해야 하느니 0.68이 맞다느니, 수입가격의 기준을 수입된 나프타 물량 전체로 해야 한다느니 석유화학 원료용에 국한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문제를 놓고 시비가 紛紛한 것이다.

만약에 자유화하기로 결정한다면 가격이고 수입 물량이고 간에 깨끗이 자유화하여 가격은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고 나프타를 수출입 어느쪽이나 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이다.

정부는 세금·기금등 모든 면에서 국내생산 나프타와 수입 나프타에 동일조건을 부여한 후 두손 탁 털고 모든 문제를 업계에 맡길 일이다. *